

#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톡톡'

## 전북대, 우수 기술력 가진 창업자에 19억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우수한 기술력과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에게 총 19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은 전북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패키지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모두 선정되면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것. 전북대는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희망하는 청년·학생들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우수 선대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사업'에도 선정되며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전북대는 지난 6월 초기창업패

키지사업을 통해 16명의 (예비)창업자를 선정해 10억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고, 7월 18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정해 8억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각각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전북대는 사업화 자금뿐 아니라 투자, 판로, 경영자문, 네트워크 등의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전북대는 2015년 창업선도대학 선정 이후 5년 연속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됐고, 지역대학에선 유일하게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실현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도 수행하며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창업기반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무료로 진행되는 일반인 창업강좌와 전북대 학생들을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 강좌,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일반인 창업강좌와 전북대 학생들을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 강좌,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창업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창업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올해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실현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까지 총 38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최근

장년 및 학생창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 및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전북교육청, 한옥마을서 학교협동조합 학생캠프 운영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24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학교협동조합 학생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교복 공동구매 등 학교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성된 교육경제공동체다.

전북에서는 현재 전라중 '생그레', 양현고 'YHAM(양)', 익산부송중 '도담', 진경여고 '어울림' 등 4곳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협동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배우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캠프에는 학교협동조합 운영학교 조합원 및 예비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교육,



모둠별 사회적경제 기업 탐방, 사회적경제 체인지메이커 이해, 상호 토론 등이다. 또 '전주농부협동조합' 체험장을 직접 방문해 치즈와 초코파이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협동과 연대, 공동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을 기획하고 도전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 머리 맞댄다

### 도교육청, 민관협의체 구성

전북도교육청이 학교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민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24일 도교육청은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화 중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문제가 지적되면서 민·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

뢰성을 확보하지는 데 목적이 있다.

협의체는 도교육청 시설과장, 담당 사무관 담당주무관 등 3명의 당연직과 학교 관계자 2명, 시민단체 3명,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설명, 석면 해체 사업 추진 현황 소개 등에 이어 방화 중 석면 해체 현장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의 주요 역할로는 △연초 사

업 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 △학교 석면 수치 확인 및 모니터링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에 따른 민원 대응 및 홍보활동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결과 평가 및 개선방향 논의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4년까지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으로, 연중 4차례 정기회의와 사안 발생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로 예산편성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과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오는 8월 9일까지 학교 석면 공사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시설 1담당 직원들이 4개조로 나뉘어 여름방학중 석면공사가 진행되는 57개 학교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 여부, 정밀청소·일일점검 등 공정관리 적정 여부, 석면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장은성 기자



24일 도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종목단체 총감독 및 지도자 간담회'가 열렸다.

## "다가오는 전국체전에 만전을"

### 전북체육회, 종목단체 총감독·지도자 간담회 개최

전북 체육인들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했다.

24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종목단체 총감독 및 지도자 간담회'가 이날 도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종목별 협조 사항과 지원금 투명 집행, 강화 훈련 상황 등 전국체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또 참석자들은 선수(성)폭력 예방교육을 비롯해 대회에 불출전하는 선수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길 기도했다.

특히 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컨디션 조절을 위해 전

북스포츠포럼센터와 체력단련장, 선수트레이너(AT)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지난해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만큼 그 여세를 몰아 올해 대회에서도 전북 체육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무더운 날씨에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의 부상방지에 특히 신경쓰고 대회가 끝날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당부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일원에서 펼쳐지며 47개 종목(정식 45개·시범 2개)이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개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지난 23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장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운영위원장 역량 강화와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교육 정책의 주요 방향에 대한 이해와 학교 자치 정착을 위해 교육 주체로서 학교운영위원장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내 몸을 살리는 우리 약속' 시기에는 귀와 손을 통해 내 몸의 건강을 알아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에 참석한 운영위원장은 전북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학교 자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운영위원 상호 간 소통과



정보 교환의 자리가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항근 교육장은 "'꽃심을 세우고 나누는 신명나는 전주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연수 기회를 자주 만들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오늘 '고교생 독서토론 인문학캠프' 열어

전북도교육청이 제8회 고등학생 독서토론 인문학 캠프를 연다고 밝혔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것이 성공의 가능자가 된 이른바 '덕질'의 시대를 맞아, 읽고 쓰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 어느덧 작가로 성공한 4인을 모시고 책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캠프는 '행복, 물음표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북튜버 김겨울의 '독서의 기쁨', 물리학자 김상욱의 '벨립과 울림', 응급 의학과 의사 남궁인의 '만약은 없다',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가 박서련의 '체공녀 강주룡'을 지정 도서로 선정한 이번 캠프를 위해 도교육청이 선정·지원한 32개 고등학생 독서토론

인문학 동아리는 지난 4월부터 읽고 토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에게 묻고 싶은 질문 만들기를 계속해 왔다.

관련한 다른 자료까지 찾아 다양한 독후활동을 해 오며 학생들은 '잘 읽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체감해 온 것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남원의 전북학생수련원에서 열리며, 학생과 교사 18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캠프는 '여는 놀이 - 저자와의 대화 - 모둠별 창작활동 - 주제 강연-월드카페식 토론 - 활동 결과 나눔'의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활동결과를 책으로 엮어 보급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